



## 농림수산부 장관에 강운태 前광주 시장 임명

### -농림수산부 인사 단행-



강운태  
장관



조일호  
차관



김동태  
차관보



원광식  
승장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전면 개각을 실시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에 전 광주시장이었던 강운태씨를 선임하였다.

신임 강운태장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1972년 행시 11회에 합격하여 일선 시·도 및 내무부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 '94년 47세의 나이로 제6대 광주시장에 발탁되어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농림수산부는 후속인사로 농림수산부 차관에 조일호 차관보를 승진·발령하는 한편 지난 1월 4일에는 김동태 농업정책실장을 차관보로 전보 발령하고 이영래 기획관리실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에 이상무, 국립농산물검역소장에 신순우, 농촌진흥청 차장에 천중인씨를 각각 1급으로 승진발령하는 한편 국장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다. ▲ 농수산통계관 김영욱 ▲ 식량정책심의관 손찬준 ▲ 농산정책심의관 서규용 ▲ 농어촌개발국장 이범섭 ▲ 원예특작국장 최종수 ▲ 농업공무원교육원장 김한수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장 오창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장 월광식 ▲ 국방대학원파견이관용 ▲ 공보관 김주수 ▲ 농촌진흥청 종자보급소장 서기호 ▲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선오씨 등 1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 축산인 궐기대회 잠정 유보

축산농민의 14년 숙원과제이고 김영삼 대통령의 92대선공약의 하나였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지난해 부업규모로 한정되면서 축산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중순경 1월 15일 경기도 과천 정부 제2 종합청사에서 개최될 계획이었던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의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축산인 궐기대회를 1월 15일 신한국당이 축산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해 올에 따라 지난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관련단체장들은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촉구하는 범축산농민들의 궐기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장들과 실무진들은 재경원을 방문하고 농림수산부장관과 관련 공무원,

신한국당 김종오 정책위원장 등의 정부와 여당 인사들을 방문하여 전면적용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배합사료 영세율 전면 적용을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김종오 의원(정책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돼지 출하체중 지표 100kg으로 상향조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77년에 소는 400kg, 돼지는 90kg으로 기준규격을 제정하여 축산물가격 및 물가지표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국내 가축의 품종개량과 고급육 생산기술보급으로 출하체중이 크게 증가되어 조사규격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고 밝히고 큰소 및 돼지성돈의 가격기준 규격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농수산물 유통정보 조사요령』을 개정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성돈은 90kg 이상 거래된 돼지의 평균 생체 kg당 가격의 경우 100kg 규격으로 환산되며, 큰소는 400kg 이상 거래된 암·수의 평균 생체 kg당 가격이 500kg 규격으로 환산된다.

## 식육·우유에 식품리콜제 우선 적용

보건복지부는 우유제품과 식육제품에 대해 식품리콜제를 우선 적용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당국자는 구 lập 25일 유제품과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오염의 우려가 높은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 제품을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식품리콜제도의 우선 적용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식품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식품에 대한 위해 여부를 평가하고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긴급과 우려상황으로 분류해 식품리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식품리콜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취급 식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대상 20% 상향 조정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을 적용 대상을 현행보다 20% 상향 조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가지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부업축산농가 규모는 돼지는 200두에서 240두로, 한우는 30두에서 36두로, 닭·오리는 1만수에서 1만2천수로, 토끼는 5천마리에서 6천마리로, 면양·산양은 3백마리에서 360마리로 각각 늘어나게 되었다. 또 젖소의 부업축산규모를 현행 20두에서 30두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대만산 냉장 돼지고기 첫수입시판

지난 1월말 대만산 냉장 돼지고기가 첫 수입되었는데 이어 미국이나 호주산 냉장 쇠고기도 상반기중 시판될 전망이다.

중소무역업체인 (주)그린라인은 대만의 육류업체 포크 평린과 돼지고기 수입계약을 체결, 지난달말 부산항을 통해 대만산 진공포장 돼지갈비

1차분 20톤을 들여왔다. 수입가격은 kg당 4.10달러(3,100원)선이다.

이번 대만산 냉장돼지고기 수입은 지난 94년 1월에 개방되어 유통기한이 10일로 한정되어 있던 수입 냉장돼지고기의 국내유통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45일로 대폭 연장되면서 진공포장 냉장돼지고기의 수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 '96 돈육 MMA 수입권공매 실시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산물협상결과에 따라 '96년도에 시장접근물량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인 축산물 유통사업단으로 하여금 '96년 1월 12일 입찰공고, 2월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입권공매를 하도록 기본지침을 시달하였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96년에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하게 되는 돼지고기는 정육기준으로 23,392톤(약 46만두분)인데 이중 22,942톤은 수입권공매로, 450톤은 관광호텔의 외화획득용 제품으로 수입하고, 닭고기는 시장접근물량 10,350톤 중 10,100톤은 수입권 공매로, 250톤은 관광호텔의 외화획득용 제품으로 수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부위는 수입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돼지고기는 업체당 입찰한도량을 18~3,000톤 이내로 하고 수입권공매 물량은 '96년 8월말까지 전량 국내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계절적으로 봄철의 돼지고기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연중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에 수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축산물 등급제 소매단계 확대, 1년 유예기간 두기로

농림수산부가 확정, 발표한 축산물 등급제의

소매단계 확대 방침은 소비자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시와 진열장 및 표시판 제작 등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1년동안 자율제도 기간을 거친후 '97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돼지고기의 등급별 표시방법은 A,B,C,D등급(규격돈)은 기준 등급으로, E등급(비규격돈)은 등외로 각각 표시하며, 등급별 표시부위 대상은 목심·삼겹살로 하고, 등급별 표시대상 지역은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제주도로 한정하였다.

또 부위별 종류와 분할방법은 상품의 다양화와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부위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소(小)분할 부위를 추가 설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부위 이상은 의무진열토록 하였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은 안심(안심살), 등심(등심살), 목심(목심살), 앞다리(앞다리살, 사태살), 뒷다리(볼기살, 설깃살, 도기나살, 보섭살, 사태살), 삼겹살(삼겹살, 갈매기살)등 대분할 7개부위와 소분할 12개 부위로 하며, 돼지고기의 의무진열 부위수는 3개 부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 사료내 잔류물질 검사 연차적 강화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1일자로 개방화시대의 수입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 축산물생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료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된 사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약 17종과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6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연차별 지도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따라 '96년 1월중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 약품 허용기준(고시)을 제정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사료내 잔류물질 허용기준 대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년에는 다이아지논 등 5종의 농약과 설파메타진 등 5종의 동물용 의약품을, 오는 1997년에는 말라치온 등 5종의 농약과 타이로신 등 29종의 동물용 의약품을, 1998년에는 BHC 등 7종의 농약과 나이카바진 등 28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각각 그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정부, 도체등급제 정착 위해 올해 64억1천4백만원 지원

정부는 육류도체에 육질·육량에 의한 객관적인 등급부여로 도매단계에서 상장, 경매에 의한 등급별 차등가격 형성 및 소매단계의 등급별 소비자 가격제도를 정착하고,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산 육류의 품질경쟁력 및 국내산 육류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에 64억1천4백만원을 등급판정소 운영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추진방향으로는 축산물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등급제 의무거래지역을 '95년 광역시 이상 대도시지역에서 올해에는 도청소재지 및 축산물 공판장 소재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며 소매단계에서의 등급제 정착을 위해 소비자·유통종사자들의 교육 및 홍보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정부,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66억8천만원 지원

정부는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과 양축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

하여 올해 66억7천5백만원을 축산물 검사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자금은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산 축산물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의 검사장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육류의 위생적 처리 및 부정육류의 유통예방을 위한 위생검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능력 향상, 기술교육 등에 쓰여진다.

### 작년 말 돼지사육두수 6백46만1천두

농림수사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12월 1일 현재 돼지의 경우 사육두수는 6백46만 1천마리로 지난 9월에 비해 2만 9천마리(0.4%)가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 50만 6천마리(8.5%)가 늘었으며, 사육가구수는 4만 6천가구로 지난 9월에 비해 2천가구, 1년전에 비해 8천가구로 줄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사육마리수가 늘어난 것은 사육규모확대에 대한 농가의식의 증대와 함께 '93년 3월 이후 산지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사육의욕이 고조되어 모든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사육호수는 전기업농 육성, WTO출범과 개방화 경제에 의한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당 사육두수는 돼지 140.2두로 지난 9월 조사에 비하여 3.8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작년 종돈 수입 2,618두 수입

지난 한해동안 최소시장접근(MMA)물량으로 수입된 종돈은 총 2천6백18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설동섭)가 최근 집계한 수출국별·품종별 종돈 수입두수현황에 의하면 지난 95년 한해동안 2천6백18두가 수입되어

94년 1천1두보다 1백61% 증가됐다.

수출국별로 보면 영국이 랜드레이스 1백90두·대요크셔 7백19두·듀록 19두 등 9백87두로 단연 으뜸이며 미국 8백20두·덴마크 3백99두·캐나다 3백98두·아일랜드 13두 등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 보면 대요크셔종이 1천4백94두·랜드레이스종 9백14두·듀록종 1백70두·햄프셔종 38두·버크셔종 1두가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종돈수입은 당초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3천두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이지만 93년도는 9백54두·94년도 1천1두에 비해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국내 사료업계 '95년에 8.5% 신장

원료곡물가격 급등현상과 이로인한 일부업체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도 배합사료업계는 전년대비 8.5%의 큰 신장을 보였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모두 1천4백69만6천2백38톤으로 잠정집계돼 전년 1천3백54만4천8백71톤에 비해 8.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축종별로 보면 양계용이 3백76만6천5백10톤으로 전년 3백48만7천1백68톤에 비해 8%가 늘었으며 양돈용은 4백72만5천4백73톤으로 전년 4백47만6천5백88톤에 비해 5.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낙농용은 2백9만4천7백88톤으로 전년 2

백5만6천1백98톤에 비해 1.9%가 늘었고 비육용의 경우 3백68만1천3백67톤으로 전년 3백19만4천8톤에 비해 무려 15.3%가 증가한 현상을 나타냈다.

기타용의 경우도 전년(33만9백9톤)대비 29.4%가 증가한 42만8천 1백톤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같은 현상은 금년들어 축산업규모의 전·기업화 현상이 뚜렷해짐과 관련 가축사육규모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1인당 육류 소비량 크게 증가

쇠고기 7kg, 돼지고기 17kg, 닭고기 5.8kg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 서면서 1인당 육류 소비량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0kg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4년도 1인당 육류소비량 25.8kg보다 15.5% 증가한 수치이다. 육류별 소비량을 보면 쇠고기가 지난 83년 4.1kg에서 93년 5.3kg, 94년 6.1kg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kg을 기록했으나 미국의 43kg, 호주의 36kg, 일본의 10kg에는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83년 1인당 9.3kg에서 93년에는 13.9kg, 95년에는 17kg으로 22% 증가했으나 대만의 40kg에는 크게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 83년 1인당 2.5kg에서 94년 5.5kg, 95년에는 5.8kg으로 증가했다.

### 본지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